

친애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난 번 10 월 기도편지를 보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최종 허가를 받기 까지 까다로운 법적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기되어진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며, 지속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난 10 기도편지에 전체적인 계획과 조직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실려있습니 . 10 월 기도편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의 웹 주소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www.thefourthriver.org.

10 기도편지에서 미국에 있는 집에서 한동안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을 맺었었는데, 대부분 저의 소망대로 되었습니다. 10 월말에 기독교 병원연합회의 초청으로 한국 병원 최고경영자 (CEO)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 왔습니다. 10 월에 있었던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쁘게 북한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0 월말의 한국 방문이후로 집에 머무르면서 미국에서 있을 제 1 기 북한 학교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북한학교

2005 북동부 북한 학교

미국 제 1 북한학교를 1 월 10 일-13 까지 뉴저지 Cream Ridge 에 있는 New Jersey Christian Academy 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저희는 제 1 북한 학교를 NIM (North Korea Inland Mission)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주최 하였습니다. NIM 은 우리가 북한을 향한 가진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있는 새로운 선교단체 입니다. 제 1 북한학교는 참으로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저희는 100 명의 참석자들을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50 명 이하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많은분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석치 못하신 분들은 귀한 축복의 시간을 놓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학교의 날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규모의 모임을 만드셨고, 참석한 한사람 한사람을 하나님께서 북한학교에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많았다면, 북한 학교 기간 동안 서로간에 깊이 알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우려는 많은 강사분들께서 사례비를 거절 하셔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또한, NIM 의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고, 또한 교회들도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북한학교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강사님들 중에는 북한의 고위 관직자로서 수십년간 가르치시던 분들과, 현재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도깊은 연구 논문 발표도 있었고, 저는 2 번의 기회에 걸쳐 강의 할 수 있었습니다. 제 1 기 북한학교는 북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북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였고, 긴 토론을 밤 늦도록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New Jersey Christian Academy 의 정 하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1 기 북한학교를 위해서 훌륭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학교를 후원까지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을 북한에 헌신하도록 부르신 주님과 북한에 대한 헌신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 북동부 북한학교 계획을 이미 시작하였고, 내년 1 3 -6 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2 기 북한학교에 오실 강사님들을 확보하여서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제 2 북한 학교에서는 북한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 역사와 한국 교회에 역사에 대한 연구 논문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원 북한 학교

2월 16 -19일까지 예수원에서 제 2기 북한 학교가 개최 되었습니다. 2기 북한 학교도, 제 1기 미국 북동부 북한학교와 같이, 저희가 계획한 참석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제 2기 예수원 북한학교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2기 북한학교에 있어야 할 분들을 보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한국에 온지 불과 몇달, 심지어는 몇주 안되는 북한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2기 북한 학교는 수요일 오후 강의로 계획되었었는데, 그 전날 화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30cm 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북한학교 기간 내내 눈이 내리고, 멈추고, 또 내리고, 멈추고 하다가, 북한학교가 마치는 토요일 오후에 눈이 멈췄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드디어 햇빛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예수원은 말할 나위 없이 쌓인 눈의 아름다움으로 정경을 이루었습니다. 높은 계곡과 산골짜기까지 눈이 쌓여, 제 2기 북한 학교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하셨습니다. 물론 그 눈을 치워야 하는 노고는 있었지만요. 북한학교 참석자들은 가방과 개인도구들을 가지고 큰길이 나올때까지 1km 가 넘는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1월에 제 2기 예수원 북한학교를 계획하였을 때도 제설경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학교 참석을 취소하신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신하는 것이 제 2기 북한학교에 참석하신 분들은 북한에 가장 헌신된 분들이었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북한학교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 형제 자매들과 소그룹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형제자매들은 다른 참석자들이나, 그들 자신에게 모두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참석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남북한의 화해의 기쁨과 참된 통일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의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북한 학교를 통해서, 최소한 매해 여름 일년에 한번씩 예수원에서 북한 학교를 개최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삼수령 훈련 센터가 건립이 되면 자주 북한 학교를 열 수 있을 것 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제 1기 예수원 북한학교 참석자분들이었고, 또한 제 2기 북한학교가 제 1기 북한학교의 이어서 심도 있게 기반을 다져 주었다고 느끼셨고, 여름에 있을 제 3기 북한 학교를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3기 북한 학교는 1기, 2기 북한학교를 중에 하나를 참석하신 분들만 등록하실 수 있으며, 참석자는 50명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만약 여유가 된다면, 북한에 대한 깊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들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날짜는 8월 8 - 12 일입니다. 제 3기 북한학교는 더 심도있게 들어갈 것이며, 또한 하루 정도 삼수령 목장에서 육체적 노동도 하게 될것 입니다. 제 3기 북한 학교는 입문과정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도깊은 수준의 학교가 될 것 입니다.

또다른 기회들

뉴저지에서 있던 북한학교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Idyllwild 에서 있었던, 첫번째 Love NK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Friends of NK 와, NK Missions 와 함께하는 OMF 공동 주체로 치루어졌습니다. 북한에 관심이 있는 100여명의 분들이 참석하였고, 이들 중에 북한에서 사업을 기반으로 삼아 북한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 하려는 분들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의로움과 정의에 대해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강의 이후에 참된 회개와 북한을 위한 중보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북한 학교에 이어서, 저희 네번째 강 계획은 다른 집회를 통하여서 북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NK Missions 과 Friends of North Korea 와 함께 2005년 JAMA 선교대회에서 1일 북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JAMA 선교대회는 대부분 한인 2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로서 4박 5일간의 능력있는 말씀과 예배로 구성된 집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석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께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2005년 JAMA 선교대회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결혼식!

이번 여름에 갔던 한국의 예수원 방문 중 가장 기뻐던 일은 북한 학교 간사들 중에서 배엘론형제님 와 이에제르자매님 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신랑신부는 삼수령과 북한에 헌신한 분들이며, 삼수령 목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엘론형제는 제 2 북한학교에서 찬양 인도자였으며, 예수원에서 수년 동안 수련을 해왔었습니다. 에제르자매(히브리어로 “돕는자”라는 뜻입니다)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엘론형제 과에제르자매는 많은 선교여행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신랑 신부의 결혼식은 동서양의 문화적 언어적으로 잘 융합된 행복한 결혼식 이었습니다. 엘론형제 과에제르자매 부부는 아주 조그만 집에 신혼 살림을 낼 것이고, 또한 삼수령 목장의 작은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보고서

토지매입

저희는 아직도 삼수령 훈련 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하기위해 하나 하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강원도 산림청 소속으로 계약상태 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저희는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보내는 허가서를 받고서, “드디어 모든 절차가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또다른 정부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수년전 처음 삼수령 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때, 한국 환경청에서 백두산을 사이로 두고 300m 의 완충지역을 확보 한 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시작했습니다. 백두대간은 저희가 삼수령 훈련센터 건물을 짓고자하는 토지의 한 모서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건물 설계를 시작 할때에, 한국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완충지역을 엄두해 두고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허가 심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갑자기 산림청에서 완충지역이 400m 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때, 사실 저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은 정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표되었고, 경로들의 모르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루트들을 주시해야 하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와 태백시 관계자들 또한 이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완충지역이 400m 가 아니라, 원래 한국 환경청의 조건대로 300m 완충지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00m 의 완충지역으로 확정된다면, 저의 설계도상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신축하려는 건물 하나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400m 의 완충지역을 고려하여 설계를 시작한다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삼수령 훈련 센터 설계를 의뢰한 엔지니어 회사에 대금 지불도 다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바라기는 몇 주안에 완충지역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마지막 허가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 토지 매입가를 협상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재정이 확보가 되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한우사육 계획

현재 7개월된 8마리의 건강한 송아지들이 목장에 있습니다. (사실 8마리 중에 2마리는 8개월된 송아지 들입니다) 큰 금액의 현금의 주신 실행이사회 여러분과 한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한우사육 계획을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한우를 축사에 들이기 전 축사를 수리하고, 현대식으로 개조하고, 수도 시설을 공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이 새로운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라기는 20마리의 한우들로 시작하기를 바랬지만,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난 가을에 8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목장의 인력이나, 겨울에 비축할 수 있는 사료와 벼집의 양으로 측정해 때에 역시 8마리가 가장 적절하게 저희가 사육 할 수 있는 수였습니다. 2005년 봄에 한우 몇마리를 더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마리 한우를 사육하는 데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한마리를 후원하시게 되면, 후원하시는 송아지의 이름을 지어 주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그 송아지의 사진과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송아지의 성장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가격은 한마리 당 3500불(350만원) 정도 입니다. 절대로 싼 가격이 아닙니다. 3500불(350만원)은 한국 현지의 한우 가격이며, 한우 소고기의 가격은 육질이 좋아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우 사육 후원은 개인 보다는 교회 전체의 계획으로 후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산지에서 한우 떼를 사육하는 경험과 기술로, 이경험으로 언젠가 저희가 길러낸 한우들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 합니다. 한우 사육 목장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훈련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의 훈련과정은 일정한 양의 육체적인 노동과 공동체의 삶이 요구되며, 리서치, 강의, 기도 생활과 공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방문 일정

예수원 40 주년 축하 행사로 인해 5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5월의 한국여행은 2 주간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제 3기 예수원 북한 학교를 위해서 8월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10월 1일에 삼수령 목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 마지막 한국 여행은 저의 아내, 리즈자매와 함께 하는 10월의 한국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첫째 아들, 르우벤과, 머느리, 로잘린, 손자 피터가 저희가 살던 집에 살며 일하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딸 조안나는 6월에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게 되고, 졸업후 오빠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전 1년간 일하는 것은 저희 가족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두 아들들이 저의 본을 삼아서, 고등학교 졸업후 1년이나 2년동안 직장생활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성인으로서 좀더 성숙해 진후에 대학교에 진학하였었는데, 조안나도 역시 고등학교 졸업 1년간 직장 경험을 쌓고 대학에 진학 하려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목장에 저희부부가 살 장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조그마한 조립식 집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한국에서는 “컨테이너 집”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립식 집을 구입하고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급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지금까지 네번째 강 계획은 세금 관계로 인해서 저희 본 교회 소속 선교 부로 활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내에서 비영리 독립 단체로 등록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 합니다. 앞으로 몇달 동안 네번째 강 계획을 비영리 단체로 출범하는 일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예수원의 찬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예수원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도, 혹시 네번째 강 계획을 후원 하시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부 소속으로 후원해 주신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으실 것입니다.

미불수표에 있는 Payable to Fourth River Project 쓰셔서 우편으로 후원 하 실 것입니다.

Ben Torrey
39 Chestnut St.
Ellington, CT 06029

저희의 여러가지 계획들을 큰 액수로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많은 후원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개 개인 모두가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6-7)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www.thefourthriver.org

자주 네번째 강 계획의 웹 사이트에서 오셔서 도서관의 새로운 자료들과 다른 정보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Ben Torrey (벤 토레이)